

|   |  |
|---|--|
| 5.  | 6.  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동주</p> <p>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<br/>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.</p> <p>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<br/>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.</p> <p>내가 오래 기르든 여원 독수리야!<br/>와서 뜯어 먹어라, 시름없이</p> <p>너는 살지고<br/>나는 여워어야지, 그러나,</p> <p>거북이야!<br/>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.</p> <p>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<br/>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<br/>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피아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봉건</p> <p>피아노에 앉은<br/>여자의 두 손에서는<br/>끊임없이<br/>열 마리씩<br/>스무 마리씩<br/>신선한 물고기가<br/>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<br/>쏟아진다.</p> <p>나는 바다로 가서<br/>가장 신나게 시퍼런<br/>파도의 칼날 하나를<br/>집어 들었다.</p> |

|  |   |
|--|---|
| 7. 2022.10.24.월 15시까지  | 8. 2022.10.24.월 15시까지  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천(歸天)<br/>천상병</p> <p>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<br/>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<br/>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,<br/><br/>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<br/>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<br/>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,<br/><br/>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<br/>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,<br/><br/>가서,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라도 길<br/>한하운</p> <p>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<br/>숨막히는 더위 뿐이더라.<br/>낯선 친구 만나면<br/>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.<br/><br/>천안 삼거리를 지나도<br/>쑤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<br/>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<br/>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<br/>가는길……<br/><br/>신을 벗으면<br/>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<br/>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.<br/>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<br/>잘릴 때까지<br/>가도가도 천리, 먼 전라도 길.</p> |
|  |   |